

# 4대 은행 없는 '금융 오지' 전남 12곳...전국 최다

### 반년 새 은행 점포 광주 4개·전남 4개 사라져...금융 소외 가속 전남에 점포없는 곳, 신한·우리 각 17곳·하나 15곳·국민 13곳 점포당 고객수 광주 1.8%·전남 2% 증가...종사자는 평균 밀들어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면서 4대 은행의 점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남은 12개 군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전남 은행 영업점들이 반년 사이 8곳 없어지면서 지역민들의 금융 소외가 가속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점포는 광주 172개·전남 162개 등 334개로, 5년 전인 2017년 말보다 27개(-

7.5%) 감소했다.  
이 기간 광주 은행 점포는 14개(-7.5%) 감소했고, 전남은 13개(-7.4%) 줄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광주 4개(-2.3%), 전남 4개(-2.4%) 등 8개 점포가 사라졌다.  
은행 창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줄면서 점포당 은행 종사자 수 역시 줄었다.  
지역 점포당 종사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9.7명·전남 8.6명으로, 지난해 말(광주 10.0명·전남 8.7명)보다 줄었다.

올해 기준 광주 점포당 종사자 수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남 평균 종사자 수도 전국 평균(10.0명)을 밀리며 전북(8.5명)과 함께 최하위에 들었다.  
점포 구조 조정이 이어지면서 고객 불편은 심화하고 있다.  
점포당 고객 수는 반년 새 수백 명 불어났다.  
광주 점포당 고객 수는 지난해 말 3만5506명에서 올해 6월 말 3만6131명으로, 1.8%(625명)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2만4366명에서 2만4845명으로, 2.0%(479명) 늘었다. 특히 전남은 디지털 금융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아 점포당 고객 수 전국 평균 증가율(1.8%)을 웃돌았다.  
이러바 '4대 시중은행'으로 꼽히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대면 금융 소외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심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전국에 47곳에 이르렀는데, 전남은 1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 이어 경남·경북(각 9개), 전북(6개), 강원(5개), 충북(4개), 인천·충남(각 1개) 순으로 4대 은행이 없는 지자체가 많았다.  
전남에서 4대 은행이 아예 없는 군(郡)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흥, 진도, 함평 등 12곳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점포가 없는 은행들은 신한·우리 각 17곳, 하나 15곳, 국민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45년 동안 목포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중심 금융기관 역할을 해온 KB국민은행 목포지점이 문 닫기도 했다.  
신홍수(59) 목포 원도심 상인회장은 "국민은행 이용자의 경우 점포가 없는 신안에서도 목포지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폐점 소식을 듣고 우려가 많았다"며 "다행히 지역 정치권과 은행, 상인회가 합의를 통해 5명이 상주하는 출장소 개소와 자동화기기 추가 설치를 이뤄내 지역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점포 통합으로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 불편 가능성이 제기되자 최근 들어 우체국 창구 제휴, 공동 점포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퇴직자로 구성된 '광주전남농협동맹회 농촌인력증개센터'가 20일 광주시 북구 금남로 한 건물에서 개소한 가운데 농협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수도권 투자사, 광주 AI·콘텐츠 기업육성 힘쓴다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국 첫 투자유치 협의체 출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민관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투자유치 민관 협의체인 'ACBC 투자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ACBC(A.I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투자 얼라이언스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수도권 지역 벤처 캐피탈(투자 자금사) 15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문화산업 투자 진흥지구 기업 유치', '지역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함께 힘쓴다.

'ACBC 투자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벤처 캐피탈 15개사는 총 67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들의 투자 유치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CBC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첫해인 지난 2020년 약 65개 기업이 참여해 91억원, 지난해에는 160억원 상당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탁용석 원장은 "특정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벤처 캐피탈의 임원급 대표펀드 매니저들이 함께하는 투자 얼라이언스의 출범은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시도"라며 "전례 없는 시도를 바탕으로 광주가 인공지능과 첨단실감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농협, 퇴직자 참여 농촌인력증개센터 개소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협 퇴직자로 구성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광주시 북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광주센터 2층에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동맹회 농촌인력증개센터는 전남도와 무안군 등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농협 퇴직자의 풍부한 인력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올해 하반기 무안군 관내 고구마 수확, 조생양파·마늘 인식 작업에 400명이 투입된다고 농협은 전했다. 영농인력이 필요한 무안지역 농가는 센터(062-526-88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협·농민단체 외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라며 "농·농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농협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영농작업반인 만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모임 일정·회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 광주은행, 모임 서비스·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모바일 앱으로 모임 구성원들과 회비 관리를 할 수 있는 '모임서비스'와 '모임적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모임서비스'는 모임 대표가 입출금계좌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임을 만들고 구성원을 초대해 함께 계좌를 조회하고 회비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광주은행 스마트폰에 가입만 하면 간편하게 모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알림을 보내거나 회비 입금자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다.  
'모임라운지'에서는 모임 현황 및 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모임적금'은 입출금계좌에만 신청 가능했던 '모임서비스'를 적금 계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모임 특화상품이다. 적금을 새로 만들 때 '모임서

비스'를 함께 가입하면 회비 조회 및 관리와 '모임라운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3개 계좌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급하게 모임경비 등이 필요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일부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모임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행사 우대금리 연 0.2%포인트 적용 때 최고 연 3.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내년 7월31일까지 출시 기념 금리 우대 행사를 진행한다.  
'모임적금'은 입출금계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적금계좌를 통해 목돈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비대면 모임이 많아지고, 모임 회비 관리의 편의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모임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단체 여행자금이나 가족 행사 비용 마련 등 목돈을 모으기에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세열굴

## "지역 창업·중소기업 성장·도약 지원 할 것"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



민간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달서비스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소안면에서 태어난 노 청장은 소안고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해외물자과장, 조달 회계팀장, 정보기술계약과장, 원자재비축과장 등 조달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창업·중소기업들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일 제35대 광주지방조달청장에 취임한 노배성(사진) 신임 청장은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지속해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 특수반 ]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